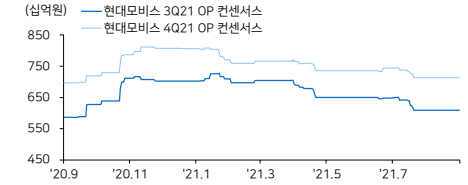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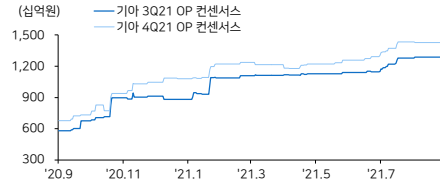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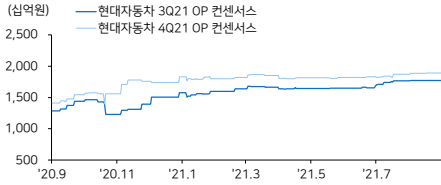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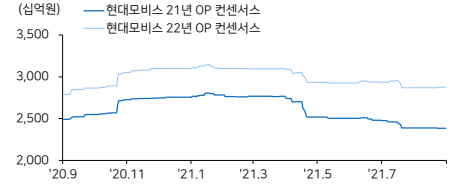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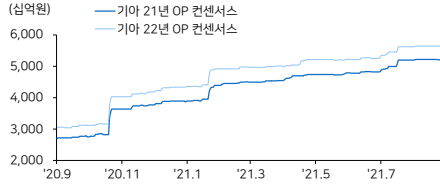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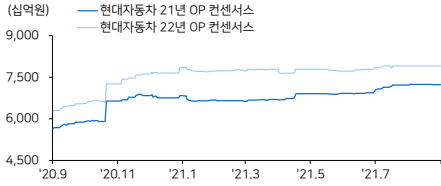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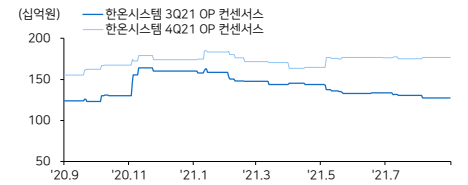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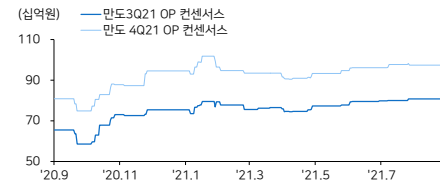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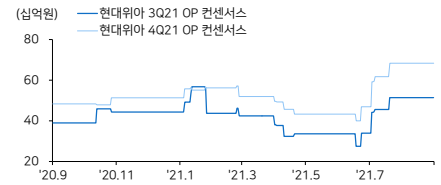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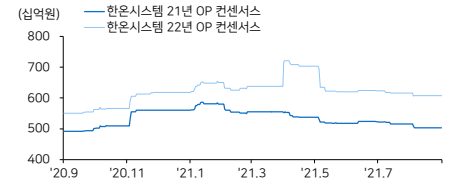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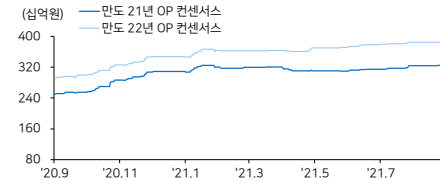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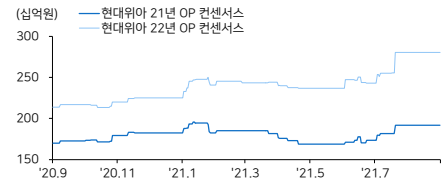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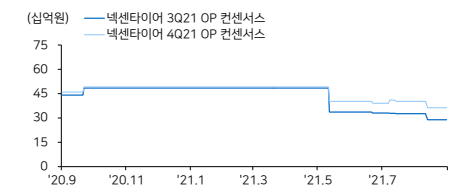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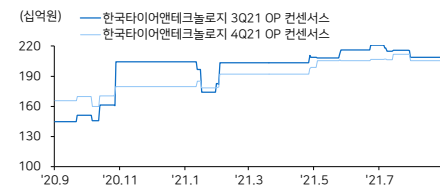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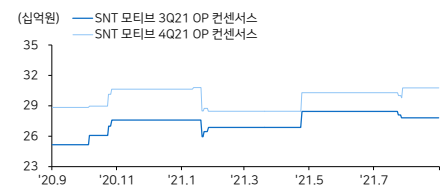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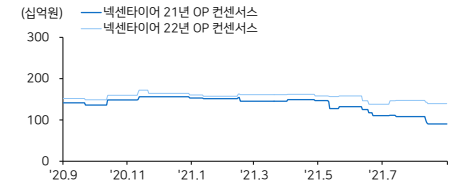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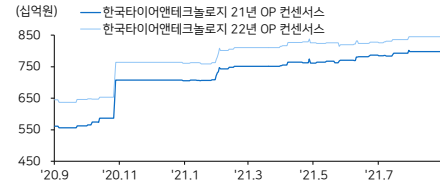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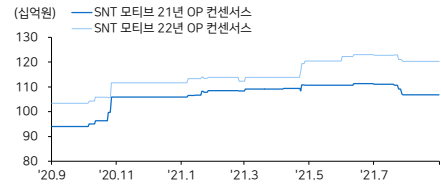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친환경+자율주행 첨단물류 추진" ... 전기·수소차, 무인로봇 총출동한다 (한국일보)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기능을 총괄하는 'TaaS 본부' 안에 물류·배송 담당 '로지스틱스 그룹'을 구성하고, 신사업 구체화 작업에 착수할. 로지스틱스 그룹은 친환경 물류, 데이터 기반 배송 솔루션 등을 개발 중.
<https://bit.ly/3nxw2pJ>

주자만 하면 알아서 무선충전...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온다 (한국경제)

현대자동차는 무선충전 기능을 적용한 제네시스 전기차를 개발 중. 과거부는 85kW 주파수 대역을 무선충전에 이용할 수 있게 2년간 실험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현대차는 올 4분기에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
<https://bit.ly/2X3ySba>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 '성금'...안택스 로보택시 모스카버서 시범운영 (THE GURU)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 파트너인 안택스가 러시아에서 로보택시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 로보택시로 활용되는 차량은 현대차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운전석에 따로 운전자를 두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해짐.
<https://bit.ly/2XawVcS>

중 '전기차 신세력' 웨이라이, 20억여 유증에 뉴욕 추가 급락 (한국경제)

웨이라이는 8일(현지시간) 장중 20억달러(약 2조3400억원) 규모의 유증을 실시한다고 발표 차량용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판매량이 주춤한 웨이라이는 이번 조달자금으로 공급망 확대 및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bit.ly/385vabv>

송호성 사장, "기아 첫 수소전기차 2028년에 내놓겠다" (전자신문)

기아가 송용 수소전기차 시장 진출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 군용 수소전기차량,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비상 발전기나 발전 차량까지 포함한 시장을 우선 공략, 이후 승용차 라인으로 확대한다는 전략.
<https://bit.ly/3jYvmEE>

현대차 아산공장 또 가동 중단...후 반도체 수급난 (ZDNet Korea)

말레이시아산 ECU 공급차질로 인해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에서 생산/납품하는 모듈이 생산 중단됨에 따라, 현대차 아산공장이 9일부터 이틀간 가동 중단 후 13일 생산을 재개할 계획. 현대차는 그랜저 소비자가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
<https://bit.ly/3lgyuXk>

현대차·테슬라, 전기차 이어 이번엔 '페테터리 재활용' 경쟁 (중앙일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경쟁이 치열함. 페테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글로벌 전기차 1위인 테슬라와 손잡고 니켈·리튬·코발트와 같은 원재료를 회수 중.
<https://bit.ly/3jY1J9p>

Ford to stop making cars in India (Reuters)

인도 자동차 시장의 약 2% 점유율을 차지하던 포드가, 10년간 20억 달러 이상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사업을 철수함. 인도는 '20년 연간 약 5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
<https://reut.ly/3jZvhU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